오랜 숙원 신청사 건립 첫 발걸음 시작

익산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익산시가 숙원사업이던 신청사 건립 문제를 해결했다.

2일 정헌율 시장은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랜 숙원이던 신청사 건립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국토부가 진행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공공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수익시설로 복합개발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신청사는 현 부지에 연면적 1만9000㎡ 규모로 건립되며 1000㎡의 주민친화시설, 2000㎡ 규모의 수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주민친화시설에는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수익시설에는 상가와 사무실 등이 입주하게 된다.

시는 480억원으로 추정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100억원 가량의 재정부담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옛 경찰서 부지와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수익형 모델로 개발하게 된다.

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분양주택 사업을 LH와 추진해 480가구의 서민주택을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문화시설, 공원, 녹지, 시민광장 등을 마련해 신청사를 지역의 랜드 마크로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청사 건립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접목해 노후도심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1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청사를 건설해 시민의 품에 안겨주겠다"면서 "주민친화시설과 결들여진 신청사를 마련함으로써 호남 3대 도시인 익산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청은 지난 1970년 사용승인된 후 47년이 경과해 재난과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청사가 9개로 분산 운영돼 시민불편이 가중돼 왔다.

/익산=장양원 기자

2일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더 높게 비상하고 더 멀리 도약"

익산시, 시무식 갖고 한 해 청사진 제시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18년 무술년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 행사를 갖고 올해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2일 오전11시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간부공무원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요원을 제외한 직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해 인사와 함께 2018년 익산시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조직 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8년 시정운영 사자성어인 '비천도해(飛天渡海)'를 소개하며, 2018년은 그 동안 준비해 온 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올해는 익산시가 새로운 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의 노력과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높게 비상하고 더 멀리 도약하여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 앞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팔봉 군경묘지와 여산 충혼탑에 들러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참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학교 2018년 시무식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2018년 시무식이 2일 오전 9시 30분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무식에는 원광학원 신명국 이사장과 김도종 총장을 비롯해 대학 및 병원 구성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성원 상호 간 세배를 통해 2018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고, 학교 발전을 기원했다.

신명국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 낸 성과들을 바탕으로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개혁의 노력은 더욱 집중화되고 고도화되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대학,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 혁신을 위한 특별한 각오와 구성원 모두가 대학의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라며, "개벽의 미래를 향한 혁신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정신으로서 만이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도종 총장은 "대학 4.0시대를 맞아 사회적 틀과 판이 바뀌는 시대 속에서 아시아 중심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었다"며, "넉넉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와 해외사업의 질적 성장 등을 끌어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부터 대학 1.0, 대학 2.0, 대학 3.0 시대의 구시대적 칸막이 사고를 버리고, 대학 4.0시대의 융·복합 사고와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구성원 개개인이 학생들을 문명사적 대전환기로 안내하는 주역이라는 사명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새해 시무식 거행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2일 오전 11시 대학 산학협력관 2층 시청각실에서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여는 시무식을 거행했다.

전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무식에서 조석남 학장은 성과향상 최우수 캠퍼스 달성 등 그간 이룬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조석남 학장은 '동심통천(同心通天)', 즉 '마음을 합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정신으로 모든 교직원이 합심해 강한 대학,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더불어 잘사는 골목경제 육성

군산시, 열악한 상권 분석 통한 맞춤형 육성방안 추진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던 군산시가 새해에도 더불어 잘사는 골목경제 육성과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잰걸음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에서는 관내 상권의 공동화 원인이 원도심 지역의 상대적 낙후성, 상권이동 및 지역경기 여건에 따른 경쟁력 악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쇼핑 증가, 상인의 자구노력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원도심의 영동 일원은 의류업종이 주를 이루는 상권으로 구성되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이에 시는 업종 다변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하수관거 개선사업 용역을 지난 12월 말에 착수한 상태며, 중앙동 일원에는 약 6개월에 걸쳐 하수관로 1.8km, 배수설비 200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막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는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통한 업종 다변화의 기반을 조성 후 상인들의 자구노력(건물 양성화 등)을 지켜보고 추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지역경제과는 각 상권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상인교육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선행하고자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며,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018년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묵 지역경제과장은 "향후 시에서는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 및 상인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차원의 골목상권 육성, 도시재생 확대 등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LH연구원, 전북연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군산시보건소,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2017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라북도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심뇌혈관질환 바로알기 및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100세 건강 아카데미 운영 ▲똑똑한 환자되기 건강클럽 운영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예방 건강교육 등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접목하여 시민 건강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시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레드써클(건강한 혈관) 걷기 캠페인 ▲뇌졸중 발생시 대처요령 동영상 활용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다각화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만성질환관리 건강리더자로 양성 의료사각 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희망스터디 사업'에 참여할 희망학생과 재능기부를 원하는 가맹학원의 모집을 시작한다.

'희망스터디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 고등생 130여명에게 특기적성 교육(평생학습 과목)을 제공하여 진로탐색,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학원비는 군산시가 50%(1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학생은 본인부담금 10%, 학원후원금 40%의 부담률로 진행되며 1가구당 1명을 지원한다.

이에 시에서는 학원비 40%의 후원을 희망하는 희망스터디 가맹학원을 오는 1월 5일까지 모집하고, 방문과 우편, 이메일(helper7179@korea.kr) 등을 통해 접수받으며, 모집기간 종료 이후에도 수시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산=김판곤 기자